

 기획재정부		<h2 style="margin: 0;">보도참고자료</h2>	
보도일시	2021. 11. 19.(금) 조간	배포일시	2021. 11. 18.(목) 10:00
담당과장	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김동익 (044-215-4710)	담당자	박창규 사무관 (ckpark0916@korea.kr)

2021년 3/4분기 대외채권·채무 동향

- ◇ '21.3/4분기말 대외채권은 1조 754억불로 전분기말(1조 611억불) 대비 143억불 증가
- ◇ '21.3/4분기말 대외채무는 6,108억불로, 전분기말(6,042억불) 대비 66억불 증가
 - 달러강세 등으로 단기외채 10년만에 최대폭 감소(△134억불)
 - IMF SDR 배분, 外人 국내채권 투자 등 장기외채 증가(+200억불)
- ◇ 대외채무의 전분기말 대비 증가폭(+66억불, +1.1%)은 2년 만에 최저수준이며, 대외건전성 지표도 개선
 - 특이요인(IMF SDR 배분) 제외시 대외채무는 사실상 감소(△50억불)
 - 단기외채/총외채(26.9%)는 '16.2분기 이후 최저, 단기외채/외환보유액(35.5%)은 '20.3분기 이후 최저 수준
 - 순대외채권(+77억불)도 3분기만에 증가

□ (대외채권) 2021년 3/4분기말 대외채권은 1조 754억불로 전분기말(1조 611억불) 대비 143억불 증가

-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증가, 정부의 해외채권 투자, 비은행권 등의 해외예치금 증가 등이 주된 요인

- (대외채무) 2021년 3/4분기말 대외채무는 6,108억불로 전분기말 (6,042억불) 대비 66억불 증가
 - (만기별) 단기외채(만기 1년 이하)는 1,646억불로 전분기말 대비 △134억불 감소하였고, 장기외채(만기 1년 초과)는 4,462억불로 200억불 증가
 - (부문별) 정부(+4억불), 중앙은행(+116억불), 기타부문(비은행권 등, +44억불) 외채는 증가하였으나, 은행권(△98억불) 외채는 감소
 - 정부는 외국인 국내 장기채권 투자(+26억불)가, 중앙은행은 IMF SDR 배분(+116억불)이, 기타부문은 증권 발행(+34억불)이 주된 증가요인이며, 은행권은 단기 차입(△78억불)을 중심으로 감소

- (순대외채권) 2021년 3/4분기말 순대외채권(대외채권-대외채무)은 4,646억불로 3분기만에 전분기말 대비 증가(+77억불)

- (평가) 대외채무의 전분기말 대비 증가폭(+66억불, +1.1%)은 2년만*에 최저수준이며, 대외건전성 지표도 개선
 - * '19.3/4분기 대외채무 전분기말 대비 △19억불 감소(△0.4%)
 - 이번 분기 외채 증가는 IMF의 SDR*(특별인출권) 일반배분에 따라 우리나라 보유규모가 증가(+116억불)한 것이 주된 요인
 - * IMF가 창출하는 대외준비자산으로 외환보유액(대외채권)과 대외채무에 동시 계상
 - 특이요인(IMF SDR 배분) 제외시 대외채무는 사실상 감소(△50억불)
 - 단기외채도 '11.3분기(△158억불, △10.2%) 이후 10년만에 최대폭으로 감소(△134억불, △7.5%)
 - 그간 은행권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던 단기차입이 재정 거래유인 축소 등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, 외국인 국내 단기채권 투자도 감소
 - * 은행권 단기차입 잔액증감(억불): ('20.4/4)65 ('21.1/4)12 (2/4)25 (3/4)△78
비거주자 단기 국채통안채 투자잔액 증감(억불): ('20.4/4)△15 ('21.1/4)33 (2/4)16 (3/4)△53

○ 외채건전성 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

- 단기외채/총외채 비중(26.9%, △2.5%p)은 '16.2분기 이후 최저, 단기외채/외환보유액 비율(35.5%, △3.7%p)은 '20.3분기 이후 최저이며, 과거 장기평균보다 낮은 수준

* 과거 평균('10~'20년)/현재(%) : (단기외채비중)30.7/26.9 (단기외채비율)36.4/35.5
 * 단기외채비율('21.2/4, %): (터키)128 (아르헨)100 (말린)83 (남아공)53 (韓)39 (인나)35

- 대외채권 증가가 외채 증가를 상회함에 따라 순대외채권도 '20.4분기 이후 3분기만에 증가
- 장기외채의 경우, 외국인 국내채권 투자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, 원화표시 외채라는 점 등 감안시 대외건전성 영향은 제한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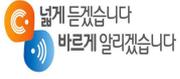
* 비거주자 장기 국채통안채 투자잔액 증감(억불): ('20.4/4)98 ('21.1/4)79 (2/4)124 (3/4)50

□ (향후 대응) 최근 美 연준 테이퍼링 개시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, 자금 유출입 흐름과 대외채무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외건전성 관리 노력 지속

< 대외채무 현황 >

구분	2019	2020			2021			전기비
		6월	9월	12월	3월	6월	9월	
총 외채(억불)	4,707	5,067	5,143	5,449	5,659	6,042	6,108	+66
단기외채(억불)	1,355	1,562	1,461	1,593	1,657	1,780	1,646	△134
장기외채(억불)	3,353	3,505	3,682	3,856	4,002	4,262	4,462	+200
단기외채/총외채(%)	28.8	30.8	28.4	29.2	29.3	29.5	26.9	△2.5%p
단기외채/보유액(%)	33.1	38.0	34.7	36.0	37.1	39.2	35.5	△3.7%p
대외채권(억불)	9,572	9,557	9,772	10,278	10,307	10,611	10,754	+143
순대외채권(억불)	4,864	4,490	4,628	4,828	4,648	4,569	4,646	+77

※ 통계 출처: 2021년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(잠정) (한국은행, '21.11.18.)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